

광주시 '기회발전특구' 지정...모빌리티·AI 날개 달았다

빛그린산단·첨단3지구...지역 주도 성장·일자리 촉진
세계 혜택·규제완화 앵커기업 유치 등 투자생태계 강화
姜시장 "투자 기업 발굴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것"

광주 빛그린국가산단과 첨단3지구
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빛그린국가산단을 '모빌리티특구'로, 첨단3지구를 '인공지능특구'로 각각 키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6일 "빛그린국가산단 68만6천7㎡ (20만7천평)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52만3천500㎡ (15만8천평)이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 주도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구역이다.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클러스터와 앵커기업이 협력해 지역 경제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세계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제공되며 기업 유치, 첨단 인프라 구축 등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지방 주도의 특구 개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지역 이전을 촉진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균형 발전을 꾀한다.

광주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빛그린국가산단을 모빌리티 분야 특구로, 첨단3지구를 인공지능(AI) 분야 특구로 각각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앵커기업인 (주)DH오토웨어 등 기업들을 유치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모빌리티특구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미래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전장부품 및 2차전지 등 미래차 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AI 특구는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융복합 서비스를 실증·구현한다.

광주시는 미래차·AI 산업의 혁신 선도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양질의 일

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광주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이날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앵커기업인 (주)DH오토웨어 등과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특구 내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광주시는 특구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지역에 오는 기업에 세계 지원·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며 "AI와 모빌리티 산업 투자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8일까지 3일간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장에 '첨단기술과 문화의 미래도시 광주'를 주제로 광주홍보관을 운영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 전기차(EV)', 감정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음악콘텐츠를 추천하는 '눈치AI' 등을 선보인다.

또한 광주시 주요 산업 정책을 알리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해 광주정신을 알리는 홍보존,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기아x오매나포드존'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박선경기자

Today	
한빛원전사용후핵연료어떻게... 5면	
영암유기농원 '고효속명인' 9면	
도전...청년창업가를 만나다 12면	



"역사를 만들었다" 11·5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 오전(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승리를 선언한 후 아내 멜라니아와 손을 잡고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 확정...“미국민에 감사”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 도래할 것...미국 우선하며 단결하자”
펜실베이니아 승리 결정 뒤 연설...“선거인단 315명 확보 예상”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8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제4대, 그리고 제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밤 우리가 역사를 만든 이유가 있다”며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는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난 우리 자녀와 여러분이 가질 자격이 있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다시 상원 다수당이 됐고, 하원 다수당 지

위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전례없고 강력한 권한을 줬다”며 행정부에 이어 의회 권력도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간단한 죄명으로 통치하겠다. 그건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며 무엇보다 내가 여러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지난 4년간의 분열을 뒤로 하고 단결할 시간”이라면서 “성공이 우리를 단결시킬 것이며 우리는 모두 미국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당분간은 우리나라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수시 와일스와 크리스 라시비타를 비롯

해 당선을 도운 이들을 거명하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가 있다. 일론이라는 스타가 탄생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자신을 지지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거명하고서 “그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 기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요건인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에는 3명 모자라는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주에서 개표가 완료됐을 때 자신이 확보할 선거인단 수를 최소 315명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인증캠페인

상점에서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에어컨 온도 1도 ↑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 26도) ₩10,923원	 영업종료 1시간 전 냉방 끄기 ₩23,573원	 문 닫고 냉난방하기 ₩27,214원	 고효율 조명 이용하기 ₩75,842원
 영업시간 외 조명 소등하기 ₩80,346원	 낮시간 자연 채광 이용하기 ₩9,874원	 개방형 냉방고 문 닫아 사용하기 ₩161,618원	 승강기 적중 운행하기 ₩32,891원